

##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추동한 역사적인 사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초청으로 주체107(2018)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리설주녀사께서 동행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박광호, 리수용,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용호외무상, 조용원, 김성남, 김병호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타신 자동차행렬은 21대 모터cycles의 호위를 받으며 남시터국빈관으로 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중국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 인민대회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과 습근평 주석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김정은원수님께 회담이 끝난 후 습근평주석과 팽려윈녀사가 성의껏 마련한 선물들을 드리었다.

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도시 단둥에 도착하자 역에서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전략부장, 진구발 료녕성당위원회 서기, 룡동북 중국철도총공사 총경리,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환홍 룡녕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비서장, 갈해웅 단둥시당위원회 서기가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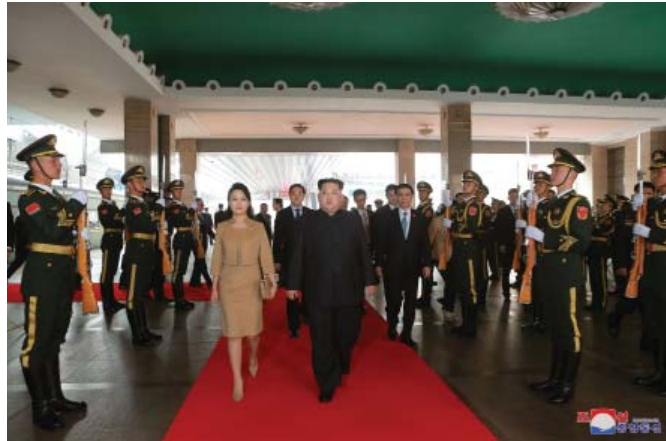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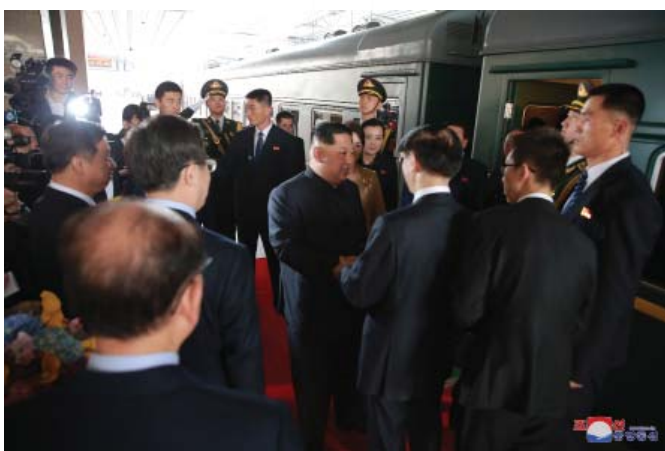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특별열차 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전략부장일행이

불원천리하여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경도시까지 마중나온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26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마중나온 중국의 당과 정부간부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여 습근평주석이 인민대회장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27일 중국과학원에서 중국공산당 제18차대회이후 이룩한 혁신적인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장을 돌아보시었다.

( 2 면 으 로 계 속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환영하는 의식이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 하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과 리설주녀사를 환영하는 의식이 3월 26일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인민대회당에 도착하시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팽려원녀사가 따 뜻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습근평 주석과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습근평 주석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첫 외국방문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습근평 주석이 이번 방문에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고 뜨겁게 환대해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녀사와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북대청에 들어서시어 중국의 당과 정부간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시며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중국인민해방군 육군, 해군, 공군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습근평 주석의 안내를 받으시며 중국인민해방군 육군, 해군, 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 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참관을 기념하여 《위대한 린방인 중국의 강대함을 알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더 훌륭한 과학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것이다. 김정은. 2018. 3. 27》이라는 친필을 남기

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이날 낚시터국민관 양원재에서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녀사가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오찬을 마치신

후 습근평 주석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27일 오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베이징을 떠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단동역을 떠나시면서 방문기간 따뜻한 동지적우의와 친선의 정을 담아 최대의 성의를 다해 극진히 환대해준 습근평 주석에게 감사전문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은 조종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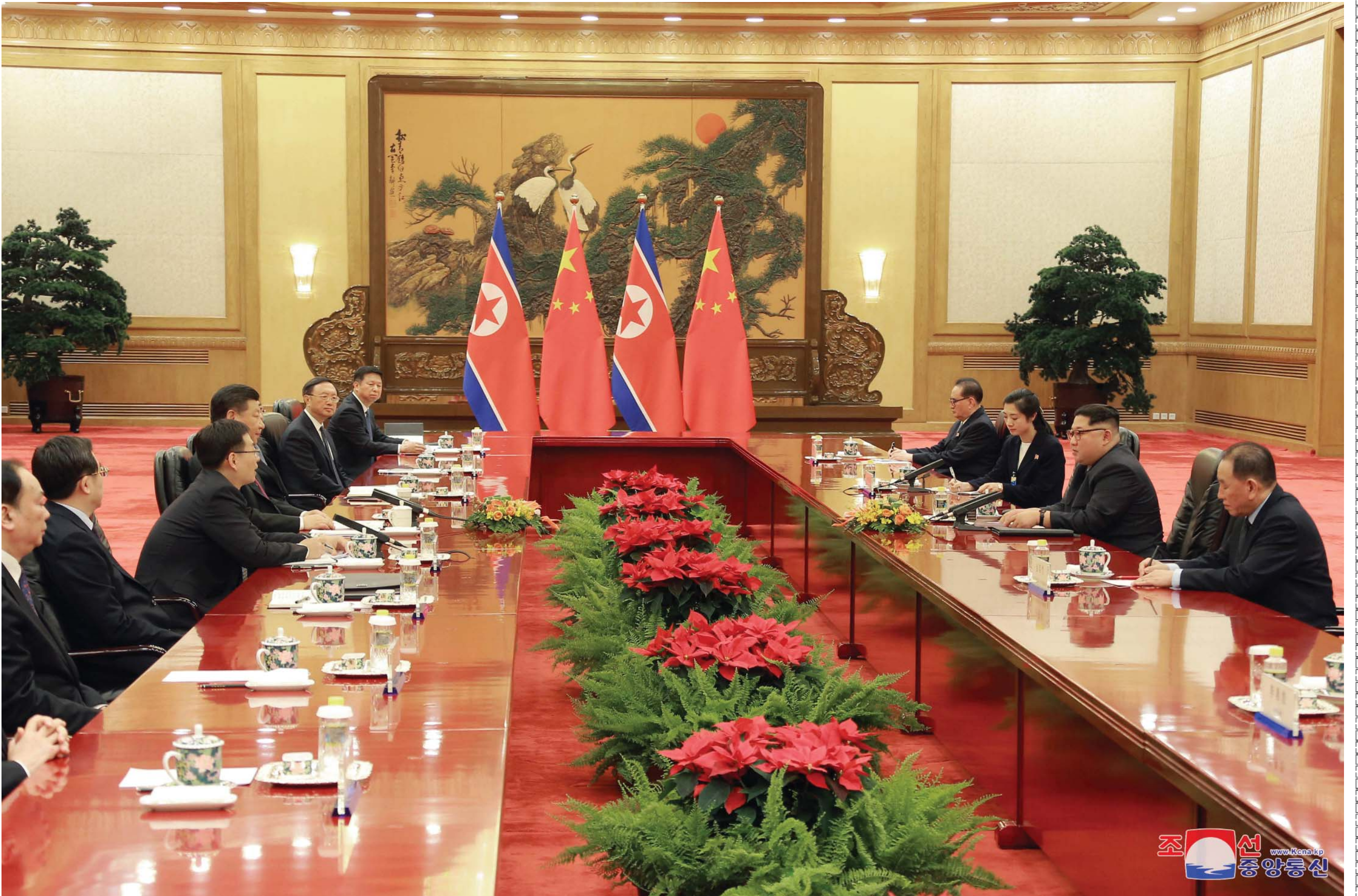
의하여 마련된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투쟁에서 맺어진 친선적인 조종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회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사이의 회담이 3월 26일 인민대회장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리수용,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용호외무상이 참가하였다.

중국측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왕호녕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정설상 당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황곤명선전부장, 양결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무위원인 왕의외교부장,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참가하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조중친선관계발전과 조선반도정세관리문제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습근평동지와 뜻깊은 첫 상봉을 하게 되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중친선의 귀중한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놓으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습근평동지를 비롯한 중국동지들과 자주 만나 우의를 더욱 두터이하고 전략적의사소통, 전략전술적협동을 강화하여 조중 두 나라의 단결과 협력을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중국인민이 새시대 사회주의

의현대화강국건설위업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습근평 주석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첫 외국방문으로 중국을 찾으시기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로세대령도자들께서 공동의 리상과 신념, 두터운 혁명적우의를 지니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진전에 기여하는 과정에 친히 마련하고 정성껏 키워온 조중친선을 중시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전략적선택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조선반도정세에서 긍정적변화가 나타나고있는것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전략적결단과 조선당과 정부가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하였다.

습근평주석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길로 끊임없이 전진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습근평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하시기를 초청하시였으며 초청은 쾌히 수락되였다.

회담은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이며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습근평주석이 성대한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3월 26일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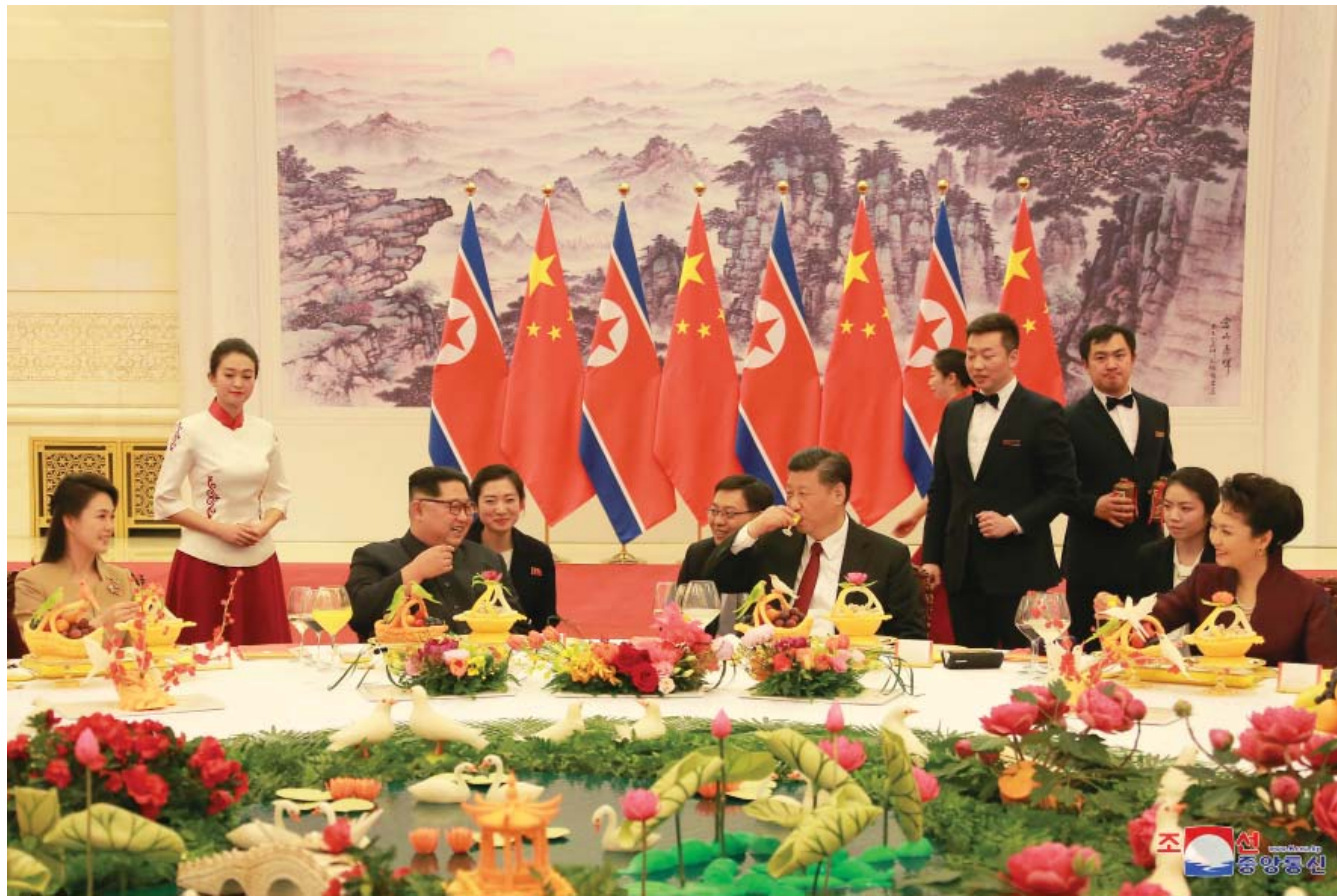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회장인 금색대청에 나오시었다. 전체 연회참가자들은 조종친선의 고귀한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로 강화발전시켜나가고계시는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연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조종친선의 뿌리를 몸소 마련하시고 품을 들여 소중히 가꾸어오신 두 당, 두 나라 령도자들의 활동을 수록한 화면 편집물을 시청하였다. 연회에서는 습근평주석이 축하연설을 하였으며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었다. 연회는 시종 동지적이며 형제적인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예술공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훌륭한 공연을 펼치고 환대의 뜻을 표하여준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었으며 습근평주석, 팽려원녀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습근평주석이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3월 27일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가 낚시터국민관 양원제에서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시었다.

청나라 건륭황제의 별궁으로 1773년에 건립된 오랜 문화유적인 양원제는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중국 선대수령들과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신 유서깊은 곳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가정적인 분위기의 특별한 오찬을 마련하고 초대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고 습근평주석과 의미있는 담화를 나누시었다. 조종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따뜻한 가정적분위기의 담화에서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와 의견들을 터놓고 말씀하시며 우애를 두터이 하시었다.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는 이날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에게 성의껏 마련하신 뜻깊은 선물을 남기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과 리설주녀사,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께서 가정적분위기에서 마주앉으신 오찬회장은 시종 화기롭고 혈연의 정이 차넘치었다. 김정은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

이날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에게 성의껏 마련하신 뜻깊은 선물을 남기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찬이 끝난 후 습근평주석에게 방문기간 따뜻이 환대해준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시고 작별인사를 나누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 연회에서 하신 김정은원수님의 연설



존경하는 습근평총서기동지, 존경하는 팽려원녀사, 친애하는 중국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례없이 격변하고있는 조선반도의 새로운 정세속에서 위대한 조종친선의 오랜 역사적전통과 혁명적의리를 변함없이 지키며 조중 두 나라 관계를 대를 이어 훌륭히 계승발전시켜나갈 일념을 안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나는 먼저 당과 국가사업을 령도하는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시간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친형제와 같이 뜨겁고 열렬하게 환대해주고있는 존경하는 습근평총서기동지와 팽려원녀사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전격적인 방문제의를 쾌히 수락해주시고 짧은 기간동안 우리들의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율인 습근평총서기동지와 중국의 당과 국가지도간부동지들의 지성과 극진한 배려에 나는 깊이 감동되었으며 그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나는 뜻깊은 이 자리를 빌어 중국공산당 제19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되는데 이어 《두 회의》가 성과적으로 결속되고 습근평총서기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거되는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전체 중국공산당원들과 중국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원들과 조선

인민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친근한 중국동지들, 나는 이번에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나의 첫 외국방문의 발걸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된것은 너무도 마땅한것이며 이는 조종친선을 대를 이어 묵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나의 숭고한 의무로도 됩니다.

나는 위대한 름방을 방문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계기를 통하여 조중 두 나라 선대령도자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이며 공동의 재부인 조종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장구한 기간 공동의 투쟁에서 서로 피와 생명을 바쳐가며 긴밀히 지지협조해온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자기들의 운명이 서로 분리될수 없다는것을 체험하였으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잇닿아있는 형제적이웃인 두 나라에 있어서 지역의 평화적환경과 안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정취하고 수호해나가는것이 얼마나 값비싼것인가를 똑똑히 새기고있습니다.

나는 방금 습근평총서기동지와 조종친선관계발전과 절박한 조선반도정세관리문제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깊이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조중 두 나라 사회주의제도

를 굳건히 다지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안겨 주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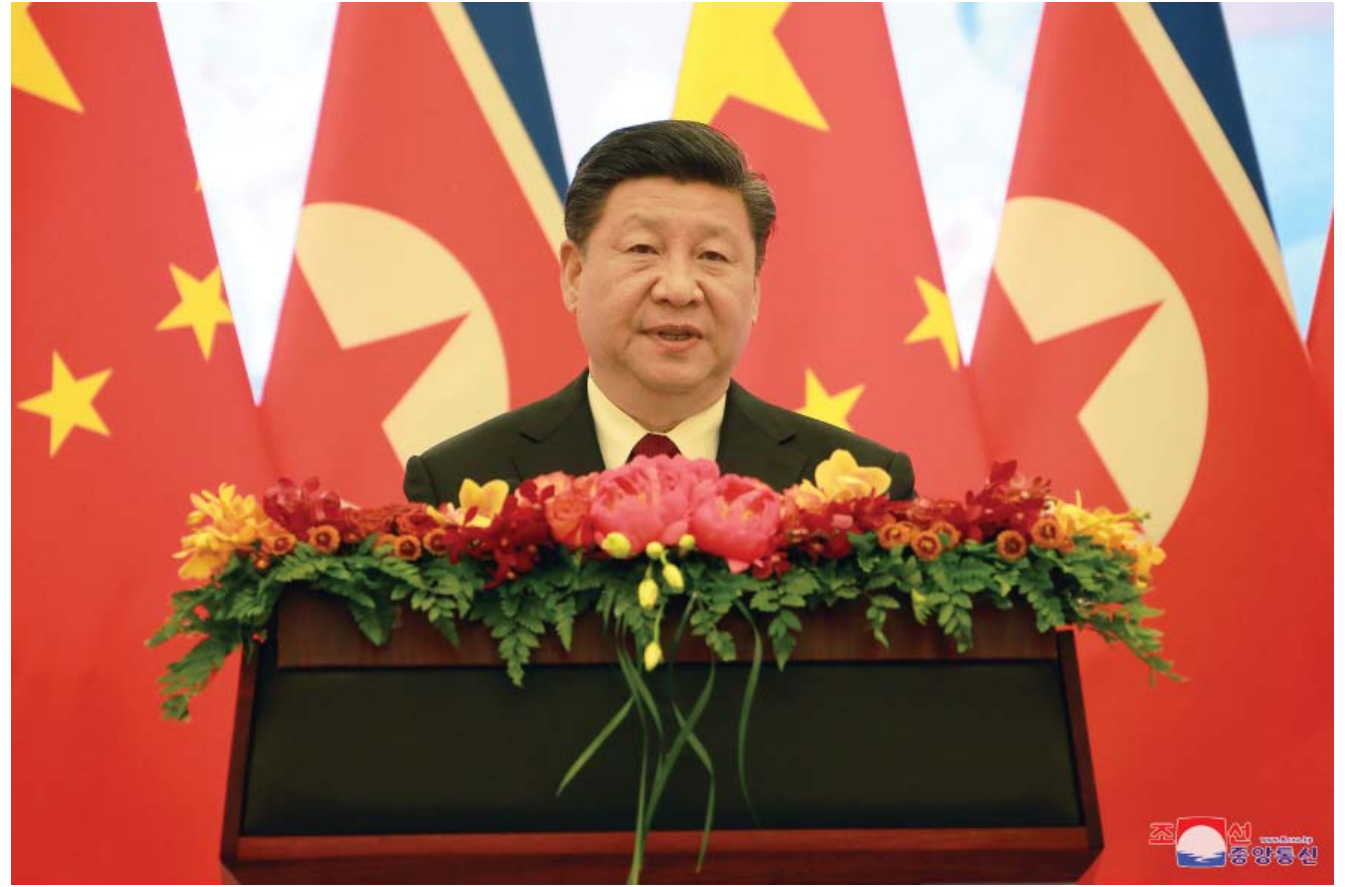
선대수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지고 력사의 온갖 돌풍속에서도 자기의 본래를 지켜온 조종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습근평총서기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귀국인민이 새시대 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위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 귀국의 국제적위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는것을 자기 일처럼 기쁘게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총서기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귀국인민이 당 제19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중화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는 환희와 희망이 넘치는 새봄에 이루어진 습근평총서기동지와 뜻깊은 첫 상봉이 조종친선관계발전의 풍요한 결실을 안아오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위대한 중국공산당의 강화발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성변영을 위하여, 존경하는 습근평총서기동지와 팽려원녀사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 연회에서 하신 습근평주석의 연설



존경하는 김정은위원장동지와 리설주녀사, 친애하는 조선동지들, 동지들과 벗들, 봄날이 찾아오고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시절에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습니다.

나는 중국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하여 열렬히 환영하는바입니다.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이번 방문은 특별한 시기에 이루어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방문으로서 김정은위원장동지께서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있다는것을 충분히 보여주어주시고 쌍방사이의 의사소통을 심화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며 협력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올려세우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것입니다.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두 당,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품을 들여 키우신것입니다.

로세대령도자들께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기나긴 세월에 친형제와 같은 정을 나누시고 서로 진심으로 대하시였으며 두터운 동지애와 우정, 형제적 정을 맺으시였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쌍무관계를 파악하고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해주고있으며 본보기를 세워주고 방향을 밝혀주었습니다.

김일성주석동지께서는 생전에 40여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시어 모택동주석동지와 주은래총리동지를 비롯한

중국 로세대령도자들과 두터운 친선의 정을 맺으시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습중훈동지께서도 생전에 조선령도자들께서 중국을 방문하시였을 때 여러 차례나 영접하시였으며 김일성주석동지, 김정일총비서동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였습니다.

내가 기억하기에는 1983년 6월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시였을 때 나의 아버지가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역전에서 맞이하였고 모진 더위를 무릅쓰고 고궁참관에 동행하였습니다.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는 매우 큰 감동을 받으시고 그후에도 여러차례나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가 2008년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그이께서는 특별히 그에 대해 회고하시였습니다.

조선에는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친선으로서 세상에 유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깊고 잎이 우거진 나무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두 당과 두 나라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고있습니다.

이 친선은 우리 공동의 귀중한 재부로서 쌍방이 귀중히 여기고 정성껏 수호하며 끊임없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는 2010년 5월 중국을 방문하시였을 때 조종친선은 로세대혁명가들께서 마련하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며 조종친선을 대를 이어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의 역사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이고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방금 전에 나는

김정은위원장동지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허심탄회한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계승하고 빛내어나가는것은 쌍방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며 쌍방의 공동의 전략적인 선택이라는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국제 및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 쌍방은 세계발전의 큰 흐름과 중조관계발전의 전반적인 국면을 틈틈히 틀어쥐며 고위급대왕을 강화하고 전략적의사소통을 심화시킴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리라고 확신합니다.

현시기 중국당과 정부, 인민은 중국공산당 제19차대회가 제시한 전략적포치에 따라 《두개 백년》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하고있습니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조선인민은 김정은위원장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분발하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친선적인 름방이며 친근한 동지로서 우리는 조선동지들이 정치적인안정을 수호하고 경제발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것을 굳게 지지하며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위업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거둘것을 축원하며 이를 확신합니다.

끝으로 나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대를 이어 계승하기 위하여, 중조 두 나라의 통성변영을 위하여, 김정은위원장동지와 리설주녀사의 건강을 축원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중조쌍방전체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 《정세변화를 이끌어내는 김정은위원장》

— 남조선 언론들과 각계가 격찬 —

지금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계층은 경이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비범한 전략적구상과 든든한 배심, 통큰 결단과 과격적조치로 조선반도정세와 세계정치흐름을 극적으로 전환시켜나가고계신다고 격찬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언론들은 《2018년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를 급변시킨 중심에는 북의 김정은위원장이 서있다.》, 《북의 김정은위원장이 조선반도 정세변화를 이끌어내는것을 전세계가 지켜보면서 충격을 금치 못하고있다. 젊은

지도자로서 세계에 이런 과목을 던질수 있다는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이미 승리하고있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김정은위원장의 명도력은 대부분 선대지도자의 명도력을 계승하고 확대발전시킨것이다. 과감한 결단력, 심도있는 분석력, 해박한 국제정치지식, 여유있는 말솜씨,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레의와 배려, 이런 이야기는 이번에 김정은위원장을 만나고 온 특사단이 이미 언론에서 발표하였다.》고 대서특필하였다.

언론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

서도 공화국의 주동적인 역할에 대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극적인 사변들이 마련되고있는데 대하여 열렬히 지지 환영해나서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민주로총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과격적인 소식이다.》, 《감동에 잠도 이루기 어렵다.》, 《공지와 자랑으로 가슴터질 지경이다.》고 경탄하면서 서울과 부산, 대전을 비롯한 각지에서 환영발언무대, 노래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을 열었다.

남조선인테넷들에는 《전쟁 없는 평화, 통일로 가는 가능성을 보았다.》, 《과격도 이런 과격이 없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자.》,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등의 지지 글들이 수없이 오르고있다.

참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공화국의 적극적이고 진지하며 성실한 자세와 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 화해와 완화의 훈풍이 불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열망이 뜨겁게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민족끼리의 가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

## 북 남 수뇌 상봉을 위한 고위급 회담 진행

【평양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열기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북남수뇌상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동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통일부 장관 조영훈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남수뇌상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 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북남수뇌상봉을 위한 여러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한데 대해서와 기타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있다.

본사기자

##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립장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공화국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몇 달전까지만 하여도 전쟁위기로 치닫던 조선반도에 화해와 완화의 훈풍이 불고있다.

새해초에 공화국은 남조선에서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밝혔다. 이에 따라 북남사이에 공화국의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합가를 위한 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공화국은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과적개회를 위해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

범단 등을 파견함으로써 대회가 우리 민족의 기개와 위상을 내외에 과시하고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단합,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였다. 특히 공화국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개막식과 폐막식에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한것은 북남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화해와 완화의 분위기를 적극 추동해주었다.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북과 남사이에 관계개선 분위기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겨례의 통일열망도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

회, 민주로총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두고 《감동에 잠도 이루기 어렵다.》, 《공지와 자랑으로 가슴터질 지경이다.》고 하면서 서울과 부산, 대전을 비롯한 각지에서 환영발언무대, 노래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을 열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남사이에 마련된 화해국면을 지지환영하고있다.

유엔과 유럽동맹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세계의 주요언론들도 현 북남관계개선분위기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지속적 인 평화와 화해를 향한 길을 닦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며 환영하고있다.

오늘 국제사회에서는 평화와 통일에 유리하게 전변되어가는 조선반도의 정세국면은 당당한 전략적지위와 일심단결의 위력을 지닌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립장의 승리라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오고있다. 그런데도 내외의 적대세력들은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이 그 무슨 《제재압박》의 결과인것처럼 떠들고있다.

조선반도의 긍정적정세변화를 놓고 《제재압박의 결과》라고 입에 올리는것은 현실에 대한 악의적인 부정이며 주객을 전도하는 파렴치의 극치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 제18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의장단회의 진행

제18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가 25일 북과 남, 해외사이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나가기 위한 범민련의 활동 방향이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보고가 있었다.

보고는 지난해 범민련이 온 겨레를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으로 적극 불러일으키고 통일애국력량의 연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을 온 겨레에게 무한한 힘과 고무를 북돋아주고있다고 보고는 강조하였다.

보고는 민족의 밝은 미래와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드높이 용기백배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한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범민련은 우리 민족끼리기치

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을 힘있게 추동해나갈것이다.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대하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의 리익과 겨례의 운명을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려는 온갖 사대매국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동족사이의 리간과 대결을 조장하는 외세의 불순한 기도에 각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범민련은 민족적화해와 통일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노력할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는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그들과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주동적으로 전개하여 범민련 조직이 있는 모든 곳에서 자주통일의 합성이 세차게 터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개최된지 70돐이 되는 올해에 4월남북련석회의정신을 이어 민족의 대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열기를

높여나가기 위한 활동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준비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이를 통하여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고 통일운동에서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범민련은 앞으로도 겨례의 운명을 위협하는 온갖 전쟁대결책동을 배격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앞장에서 전개해나갈것이다.

범민련은 각계각층속에 깊이 들어가 지역,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대오를 계속 늘여나가며 자주통일, 평화수호, 전쟁반대를 위한 다양한 실천과정을 통하여 조직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것이다.

보고는 범민련이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주통일의 선봉대, 민족대단합의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공동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 제18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오늘 우리는 민족의 단합된 힘과 위상이 세계민방에 힘있게 떨쳐지고 북과 남, 해외에서 자주통일의 열기가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제18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다.

범민련은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한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 불같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범민련은 우리 민족끼리기치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을 힘있게 추동해나갈것이다.

북남관계개선,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이것은 우리 겨례가 주인이 되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설 때 북남사이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넘치 못할 난관이 없다.

범민련은 우리 민족끼리기치 제일이며 바로 여기에 평화와 있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유일한 출로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6.15의 소중한 결실들을 모두 복원하며 6.15자주통일시대를 되살리고 제2의 6.15시대로 더욱 전진시켜나갈것이다.

범민련은 민족의 리익과 겨례의 운명을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려는 온갖 사대매국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북남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간섭과 전횡을 추구하면서 동족사이의 리간과 대결을 조장하는 외세의 불순한 기도에 맞서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다.

2. 범민련은 민족적화해와 통일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 위하여 앞장서나갈것이다.

북남사이에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화해와 통

일분위기를 살려나가는것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사이에 관계개선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범민련은 사상과 립면,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 정당별, 계층별, 부문별단체들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장려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는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할것이다.

범민련은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주동적으로 전개하여 범민련조직이 있는 모든 곳에서 자주통일의 합성이 세차게 터져나오게 하며 북남선언들을 고리 민족내부문제이며 이것은 우리 겨례가 주인이 되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범민련은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정신을 이어 민족의 대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열기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하여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준비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이를 통하여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고 통일운동에서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강화해나갈것이다.

특히 뜻깊은 올해에 북남선언 발표기념일들을 비롯한 주요계기들마다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실시시켜 민족의 대단합과 자주통일의지를 과시해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각계층의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거나 《선별불허》하면서 민족적화해와 단합에 역행하는 행위들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성을 높여나갈것이다.

3. 범민련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앞장에서 전개

해나갈것이다.

지금 해내의 온 겨례는 불과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폭발직전의 전쟁위기에 감동던 조선반도에 평화와 관계개선의 기류가 흐르고 북남대화가 이루어지고있는데 대해 지지환영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있다.

범민련은 각계각층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지역,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대오를 계속 늘여나가며 자주통일, 평화수호, 전쟁반대를 위한 다양한 실천과정을 통하여 범민련조직을 튼튼히 다져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남측본부의 합법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며 북, 남, 해외 3차련대를 더욱 강화하여 범민련이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주통일의 선봉대, 민족대단합의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온 겨례가 우리 범민련을 지지 보고있으며 격변하는 시대가 범민련을 부르고있다.

우리모두 필승의 신심과 락관 을 가지고 자주통일의 령마루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2018년 3월 25일

## 민족단합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7)

##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준 고마운 품

절세위인들의 애국의 뜻을 받들어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남긴 사람들중에는 남조선의 이전 외무부장관이었던 최덕신선생도 있다.

진정한 애국의 길을 몰라 방황하던 선생이 참다운 애국애족의 길을 걷기 시작한것은 위대한 길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품,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부터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나라잃은 설움을 안고 이역방방 헤매이던 최덕신선생은 8.15후에는 남조선에서 《국군》연대장, 사단장, 군단장을 거쳐 외무부장관을 하면서 반공일선에 섰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는 파쑈매국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남조선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해외명명생활을 하였다.

명명의 나날 최덕신선생은 해외동포들의 활발한 공화국방문소식을 접하면서 점차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화국을 방문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방문의 길에 오르려고 하니 반공매국의 과거로 하여 번민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지만 과거를 불문하고 련공통일에 살려는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안아주는 공화국의 실상을 인식하고 드디어 조국방문의 길에 올랐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그가 공화국을 방문한다는것을 아시고 선친의 묘소를 찾아보도록 하시였고 나라일에 다망하신 속에서도 그를 친히 만나주시었다. 선생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

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그의 새로운 결심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지금 나라가 통일이나 분열이나 하는 기로에 선 이때 과거는 어찌까지나 과거이고 통일을 위한 한문 해야 할것이 아니냐고 일깨워주시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민족의 리익을 우선시하시는 그의 열렬한 애국애족의 깊은 뜻에 선생은 큰 충격을 받았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선생과 부인이 병으로 고생한다는것을 아시고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하여 완쾌하도록 조치하시였고 고생일 70돐을 맞을 때는 생일상도 차려주시었다.

여러차례의 방문끝에 조국에 영주할것을 마음다지고 있던 선생이 최덕신선생이야 해외에 있을 때에도 조국통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는것이 어찌나고 다행히 물으셨었다.

최덕신선생은 너무도 뜻밖의 크나큰 믿음앞에 그 고마움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가 없었다. 비록 지나온 경력에는 어찌러 운까지 많은 정적이지만 말뿐이 아니라 참다운 통일애국의 길에 이끌어주시려는 그의 넓은 품에서라도 그를 친히 만나주시었다. 선생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

일을 위해 힘껏 일할것을 말씀 올리였다.

이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선생의 간절한 소망대로 그를 《최덕신동무!》라고 부르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동무!》라는 고귀한 칭호에는 말년에는 인생전환을 한 선생과 영원히 한데 오속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시려는 그의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었다.

그후 선생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친도청우당 중앙위원의 위원장, 조선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였고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으로서 국사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최덕신선생은 인생말년에 자신 의 온넉을 다 바칠 위대한 품에 안긴 크나큰 기쁨과 감격을 혼자 가슴에만 묻어둘수 없이 심장으로 토로하였다.

...  
오늘은 수령님의 품에 안긴 그 먼 지난날은 잘라던지고 새로운 삶을 받아안아 해빛을 우리러 신 향일화처럼 삼장이 새롭게 뛰고 온몸에 새 힘이 넘치나이다 ...  
공화국에 영주하여 참담고 보람있는 삶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선생은 위대한 주석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는 길에 진정한 애국애족이 있다는것을 더욱 절감하였으며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한울님》에 비겨 청송하여마지 않았던것이다.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 최덕신선생내외를 만나시고 오찬도 같이 하시며 건강문제로부터 사업과 생활에 이르기까지 넘쳐주시며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선무! 라는 고귀한 칭호에는 말년에는 외국에 보내어 치료하도록 하시고 특별비행기로 식료품과 남새 등도 보내주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선생이 운명하였을 때에는 그가 자신의 사랑을 다 받지 못하고 갔다고 그처럼 비통해하시며 고인의 령전에 자신의 명의로 화환도 보내시고 선생의 령구를 찾아 예도의 뜻을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생의 장의를 잘하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어 장의가 새롭게 뛰고 온몸에 새 힘이 넘치나이다 ...  
공화국에 영주하여 참담고 보람있는 삶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선생은 위대한 주석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는 길에 진정한 애국애족이 있다는것을 더욱 절감하였으며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한울님》에 비겨 청송하여마지 않았던것이다.

본사기자 고성호